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겨레의 창

언어의 민주적 공유는 평화적 공존의 전제

최경봉 /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언어는 어떤 언어나 고요한 자리에 놓고 위하거만 하는 미술품은 아니다. 일용잡화와 마찬가지의 생활품으로 존재한다. 눈만 뜨면 불을 쓰듯, 물이나 비누를 쓰듯, 아니 그보다 더 절박하게 먼저 사용되는 것이 언어라 하겠다. 언어는 철두철미 생활품이다. 그러므로 잡화나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대로 언어는 생기고 변하고 없어지고 한다. (이태준, [문장강화], 1940)

이태준은 언어가 일용잡화와 같은 생활품임을 강조했다. 1940년대 우리말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미처럼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태준의 말이 상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이태준의 눈으로 우리말과 글을 바라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해방 후,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을 치유해야 했던 때,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을 도로 찾고자 했고 이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려 했다. 산업화 시대, 국민정신 또는 민족주체성이 강조되던 시절, 그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었고,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했고,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면서도 인류 공명에 이바지해야만 했다. 이때 한글과 우리말은 조상의 빛난 얼이었고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징표였다.

그 시절, 자존심의 회복과 역사적 사명을 의식해야 했던 국어정책은 규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국어순화=민족주체성 확립=국민정신 통일”의 등식이 만들 어진 것이다.

1968년 국민교육현장 제정되고 민족주체성이 강조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전용을 지시했다. 1970년 교과서에서는 전면적으로 한글전용을 채택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국어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어순화운동을 지시하였고, 문교부 내에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신설되었다. 전국민적인 국어순화운동이 일어났고, 국어순화를 위한 경영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언어의 문제를 민족주체성과 국어정책으로 확대한 결과는 ‘국어의 피폐’였다. 각종 행정조치와 사전 검열을 통해 국어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지만, 난해한 문장과 비문으로 가득 찬 행정문서와 법률문서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주체성 확립’과 ‘국민정신 통일’을 위한 국어정책은 상상의 ‘국민’을 동원하는 일이었지, 우리말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니었다. 국어정책이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방기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이 자부심으로 변할 만큼 국가가 부강해졌다. 그런데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던 시절의 잔영은 새로운 한글 판타지를 만들었고, 판타지의 주인공은 상상의 ‘국민’에서 상상의 ‘세계인’으로 대체되었다.

“고유의 말은 있지만 문자는 없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짜마찌마족. 그들은 자신의 역사조차 자신의 말로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글을 공식 표기문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수난과 건설의 시절, 조상의 빛난 얼이었고 자주독립의 징표인 한글은 세상 어느 문자보다 우수한 문자였다. 한글을 쓸 수 있는 우리는 당연히 천운을 타고난 민족이었다. 그러한 자부심은 간혹 다른 문자에 대한 차별을 또는 한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았다. 한글과 관련한 오해와 편견의 잡언(箴言)에 머린 시절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가! 그러한 잡언이 얹히고 설친 끝에 드디어 ‘소외된 천재의 강박’과 ‘한글제국주의의 애절한 탐욕’이 배어 있는 한글 판타지가 탄생했다.

매혹적인 서사의 판타지는 너무도 쉽게 상식의 눈을 가렸다. 그러나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 그 착각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문화부는 ‘공식 문자 채택’ 관련 부분은 ‘부족어 표기에 한글 교육 실시’로 수정하기로 했고, ‘문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다. 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이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용어와 고유 문자가 없는 지방어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2.10.23.)

역사적 사명감을 벗어던졌을 때, 그리고 잠시나마 무리를 행복하게 했던 판타지를 덮었을 때, 현실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러나 사실 변한 건 없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글과 우리말은 우리가 써 왔고 앞으로도 써야 할 생활품이다. 오히려 적나라한 현실은 생활품을 생활품답게 쓸 수 있는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질문: 말과 글이 왜 있어야 할까? / 대답: 의사소통을 위해서.

질문: 어릴 때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고 하지? / 대답: 상대에게 내 뜻을 잘 전달했을 때지.

그런데 현실의 권력 관계는 미처럼 단순한 의사소통의 원칙을 왜곡할 수도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이란 배심원제도를 뜻합니다. 종래 재판의 객체로만 여겨져온 국민들이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재판의 영역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미전 검사나 변호인이 판사와의 소통에 만족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호소력을 높이는 새로운 법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승현 인터뷰 기사, [경향신문], 2009년 6월 11일자)

의사소통의 원칙을 왜곡하는 현실의 권력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언어의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품으로서 언어의 사용법은 분명해진다. 이때 핵심은 생활품이라 할 수 있는 공공언어의 통제 원칙을 정하는 일이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로 배심원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정부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설혹 그 일이 전문적인 일일지라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정부와 전문가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은 공공언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닦는 일이다.

민주사회에서 언어 통제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지향한다. 이때 언어통제의 제1 원칙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라는 것이다. “수용자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 수 있게 배려하는 태도로 쓰면 글은 쉬워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요구할 권리만 있을까? 우리는 공공언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하며 살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표현할 기회는 많아진다.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은 생활이자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공공언어를 통제하는 것과 사회 구성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 모두를 공공성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다문화사회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분히 공공성을 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재음미 할 말은 “언어는 철두철미 생활품”이라는 말이다. 생활품이기에 모든 국민이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안, 의사소통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생활품의 민주적 공유는 평화적 공존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휘 의미론, 국어학사, 국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우리말의 수수께끼』(공저), 『우리말의 탄생』,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공저), 『국어사전학 개론』(공저), 『한글 민주주의』, 『교양 있는 10대를 위한 우리말 문법 이야기』,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사전』 등을 저술했다.

겨례의 창 ·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김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우리말 보물찾기

임금님, 임금님, 우리 임금님

_ 이상배 / 동화작가

유월 가뭄이 극심합니다. 논바닥이 쪽쪽 갈라지듯이 농부들의 마음도 쪽쪽 갈라졌습니다.
옛날 백성들은 가뭄이 들면 나랏님이 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랏님 스스로도 덕이 없음을 한탄하고 끼니를 거르고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하늘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나랏님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은 이야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늘 근심에 싸여 하루 하루 **랭이잠**을 잤습니다.

“배고프고 병든 백성은 없을까?”

“농사는 잘 되고 있는지?”

“고기는 잘 잡하고 있는지?”

“힘센 자가 힘없는 백성을 억누르지 않는지?”

“도둑은 없는지?”

“역병이 돌지는 않을지?”

임금은 한시도 나라 걱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대궐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저잣거리**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일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상을 내리고, 나쁜 것을 보면 미루지 않고 고쳤습니다.

어느 해,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른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임금은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빨리 비가 내려야 할 텐데, 농사가 걱정이구나.”

임금은 온 나라에 영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샘을 파도록 하여라.”

그날부터 나라 안은 밤낮 없이 샘 파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샘에서 길어 올린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임금은 당장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상감마마 납시오.”

농부들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다 함께 더 많은 샘을 파서 물을 길읍시다. 나도 샘을 파러 왔소.”

임금은 그날부터 마을의 한 오두막에 머물면서 농부들과 같이 샘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어찌 이런 일을….”

농부들은 활동하며 머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금이 하루 이틀 샘 파는 시늉을 하다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샘 파는 일은 열흘, 스무 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힘든 논밭 일을 농사꾼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임금은 농사일에 **이골**이 났습니다. 호미나 랭이를 다루는 **다름새**가 농부 같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임금의 깊은 뜻을 알고 자신들의 머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새**가 순박한 농부들은 금방 미웃들과 힘을 합하여 샘을 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물이 들었어도 임금과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한 노력으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수확이 끝날 무렵, 다른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터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임금은 곧 싸움이 벌어진 강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저렇게 넓은 강을 두고 싸울 것이 뭐 있는가.”

임금은 그날부터 어부들과 같이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를 저어 강에 나가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물 가득 잡힌 고기는 어부들에게 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임금은 고추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빙동거리며 놀기만 하던 어부들이 임금을 따라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상감마마, 이 뜻난 백성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어부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미기심과 게으름의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진 임금은 백성을 위해 샘 파고 논밭 일을 하는 농부가 되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어버이처럼 따르고 섬기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순우리말 뜻

하늘바라기: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천둥지기.

랭이잠: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면서 자는 잠.

저잣거리: 가게가 죽 늘어서 있는 거리.

마른하늘: 비나 눈이 오지 아니하는 맑은 하늘.

물싸움: 논이나 우물에서 물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질. 이 글에서는 가뭄 때 귀한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벌인 싸움.

이골: 아주 길이 틀어서 몸에 끕 번 버릇.

다름새: 다른 늪 솜씨나 모양새.

본새: 1)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될됨이, 2) 어떤 물건의 본디의 생김새.

그물질: 그물을 써서 고기를 잡는 일. 그물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끈이나 실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얹은 물건.

고추바람: 살을 에는 듯 매섭게 부는 차가운 바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이상배 |

동화작가, 한국마동문학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도서출판 좋은풀 대표이다. 대한민국 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책읽는 도깨비』, 『책귀신 세종대왕』, 『부엌새 아저씨』, 『우리말 동화』, 『우리말 바루기』 등이 있다.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김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뜻풀이 김고 더하기

흉내말의 뜻풀이

_ 박동근 / 대진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흉내말의 발달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어휘적 특징 중에 하나이다. 흉내말은 하나의 형태가 자모음 교체나 반복 등의 방법으로 미묘한 말맛의 차이를 가지면서 다양한 관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흉내말이 발달하는 기초가 된다. 흉내말이 갖는 자모음 교체나 반복 등의 특징은 우리가 흉내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생동감 있고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전편찬자의 입장에서 모든 흉내말의 관련어들을 뜻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반작: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짝’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반짝: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빤짝: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짝’보다 센 느낌을 준다.

이에, 앞선 사전들은 관련어들 간의 체계적인 뜻풀이를 위해 다양한 뜻풀이 방식을 고민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은 흉내말의 관련어를 처리하는 데 뜻풀이의 체계성을 특히 중요시하였는데, ‘반작’, ‘반짝’, ‘빤짝’처럼 자음 교체에 따른 말맛의 차이는 뜻풀이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적인 정보로 구별하였다.

잘각: ‘잘가닥’의 준말.

잘가닥: 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본말>과 <준말>의 뜻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잘각’과 ‘잘가닥’의 경우 ‘잘가닥’에만 뜻풀이를 하고 ‘잘각’은 ‘잘가닥’의 준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뜻풀이를 대신하였다. 이는 ‘잘각’과 ‘잘가닥’을 동의어로 처리한 셈이다. 하지만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도상성의 기본 원리를 굳이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음성상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흉내말은 하나하나의 음운이 갖는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든 뜻풀이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자모 교체에 의한 말맛의 차이는 대개 흉내말이 모방하는 대상의 고유한 속성이나 모방한 소리 또는 모양의 양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뜻풀이에 이러한 차이를 잘 반영해야 한다.

반작: 작고 여린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반짝: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빤짝: 작고 센 빛이 마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일반 어휘가 <준말>과 <본말>의 관계를 가질 때 동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흉내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소리나 모양을 모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뜻풀이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잘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잘가닥: 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걸리는 듯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흉내말의 관련어들이 갖는 미묘한 말맛의 차이를 잘 잡아내어 체계적으로 풀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순기·리기원(1984)에서 지적했듯이 너무 격식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흉내말의 체계적인 뜻풀이를 고려하되 인위적인 뜻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편찬자는 무엇보다 언어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 개별 흉내말의 사용 양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뜻풀이를 해야 한다.

| 박동근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현재 대진대학교 교양연구원 교수로 『겨레말큰사전』의 흉내말 뜻풀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겨례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길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남녘말 북녘말

남과 북의 외래어는 얼마나 다를까?

- 유현경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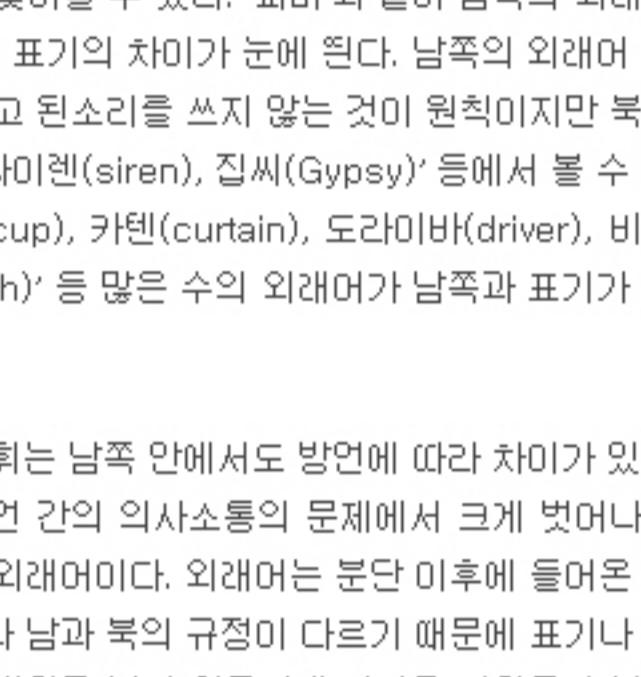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이 보이지 않는 선을 사이에 두고 따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되었다는 뜻이다. 70년 동안 남북의 언어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지난해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회의 참석 차 평양에 처음 갔을 때 그동안 책이나 언론을 통하여 알아왔던 북쪽의 언어생활을 실제로 접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되었다.

남북 언어생활의 차이는 동일한 대상을 다른 형식으로 가리키는 어휘들을 예로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남쪽에서 북쪽의 어휘들로 알려진 것들 중 오류가 많다는 사실이 최근에 여러 지면을 통하여 지적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쪽의 어휘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이나 책 등 글말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새터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실제 북쪽의 언어생활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예들 중 북쪽에서 아이스크림을 다듬은 말인 ‘얼음보송이’가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꽤 알려진 사실이다. ‘얼음보송이’라는 말은 최근 북쪽에서 나온 사전에도 빠져 있고 오히려 남쪽의 일부 국어사전에만 ‘아이스크림’의 북쪽말로 실려 있는 정도이다. 지난해 가을 평양에서 편찬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묵었던 호텔의 상점에 있었던 아이스크림은 남쪽의 상품과 비슷한 것이었다. 말로만 들었던 ‘에스키모’를 발견하고 신기한 마음에 카메라로 찍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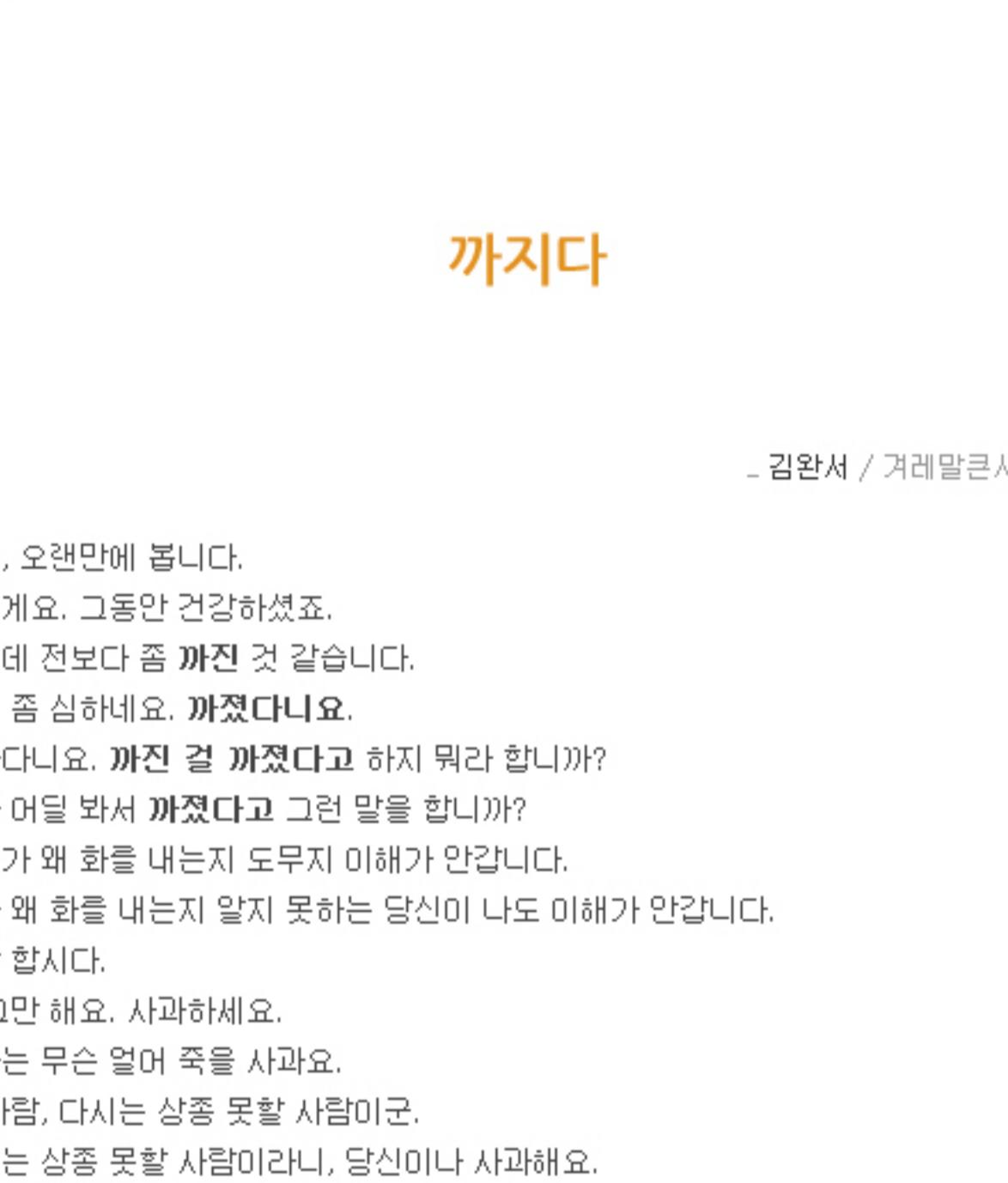
‘에스키모’는 북쪽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의 상품명이다. 냉장고 안에는 ‘코코마향 에스키모’, ‘쵸콜렛 에스키모’, ‘과일즙 에스키모’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에스키모가 있었다. 대표적인 상품명이나 그 상품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일반명사처럼 사용하는 예는 ‘호치키스’, 봉고차, 바바리, 샌드위치’ 등이 있다. 북쪽 호텔의 음료를 파는 커피숍의 메뉴판(두 번째 사진)에도 ‘에스키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점대원한테 물었더니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에스키모라는 메뉴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보아서는 남쪽에서 파는 아이스크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나온 사전에는 ‘에스키모’ 이외에 ‘아이스크림’도 올림말로 올라 있다. 실제 북쪽에서는 ‘얼음보송이’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아이스크림’보다는 ‘에스키모’가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의 다듬은 말인 ‘얼음보송이’가 정착되지 못하고 없어진 것은 언어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북쪽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언어는 사용자들이 외면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호텔 상점의 ‘에스키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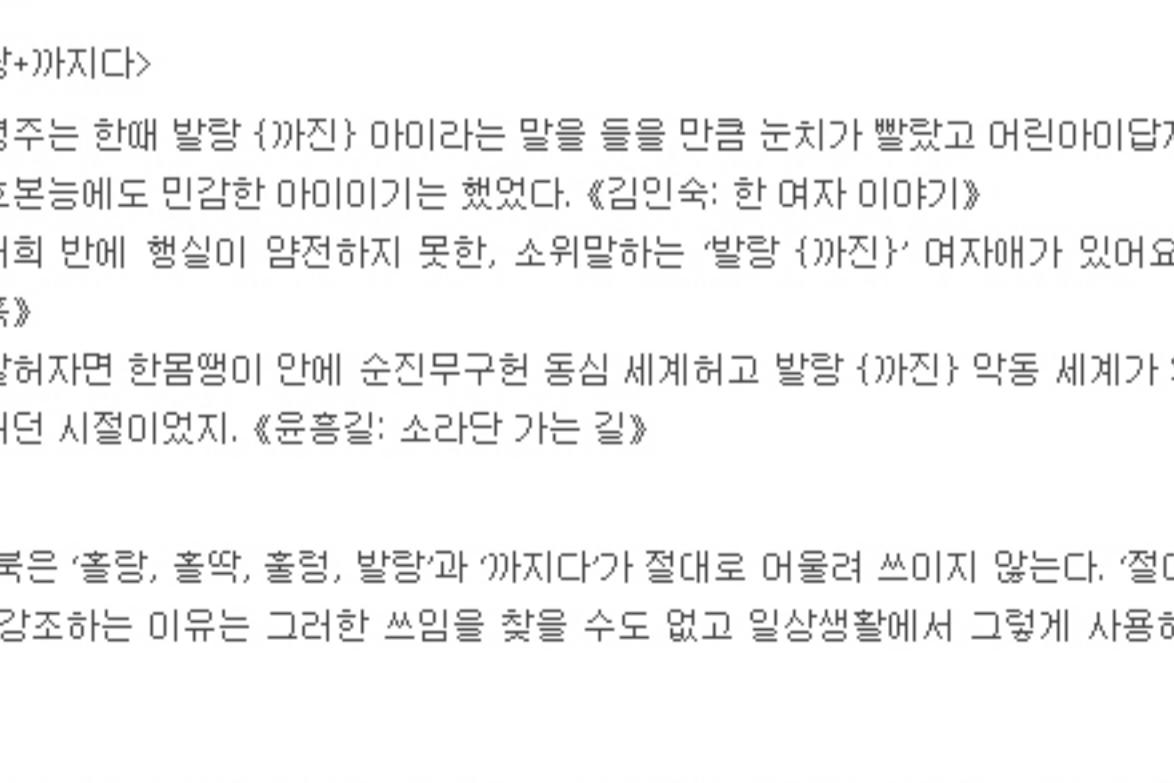


호텔 커피숍의 ‘에스키모’



호텔 커피숍 메뉴판

아이스크림 이외에도 커피숍에서 파는 음료의 종류는 커피부터 주스, 녹차, 홍차까지 남쪽과 크게 다름없었다. 남쪽의 외래어 규정에 의하면 ‘주스’인데 북에서는 ‘쥬스’로 표기하고 있었다.(위 사진 참조) ‘과일 종합쥬스’에서는 ‘쥬스’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くだん물’은 ‘쥬스’ 대신에 ‘くだん물’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한 것이나 아이스크페는 ‘찬 커피’로, 뜨거운 커피는 ‘더운 커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북쪽의 외래어는 대규모 말다툼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외래어가 고유어로 바뀌었지만 ‘얼음보송이’처럼 다듬은 말이 쓰이지 않고 외래어가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 이미 그 쓰임이 굳어져 널리 쓰이거나 마땅한 다듬은 말이 없을 때는 외래어가 그냥 쓰이기도 한다. 다음의 사진은 북쪽의 호텔 안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봉사요금을 표시한 것이다.



호텔 ‘봉사료금’ 표

여기에서도 ‘파마라든지’, ‘ﾍｰﾄﾞ’, ‘ﾎｰﾙﾝ’ 등의 외래어를 찾아볼 수 있다. ‘파마’와 같이 남쪽의 외래어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ﾍｰﾄﾞ’나 ‘ﾎｰﾙﾝ’ 등의 단어에서는 표기의 차이가 눈에 된다. 남쪽의 외래어 규정은 베트남 어나 타이어 등 동남아의 몇 언어를 제외하고 원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에서는 외래어 규정에서 ‘ﾊｰｽ(bus), 마싸지(massage), 싸이렌(siren), 짐씨(Gypsy)’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원소리를 쓰는 범위가 훨씬 넓다. 미밖에 ‘고뿌(cup), 카텐(curtain), 도라이바(driver), 비데오(video), 세멘트(cement), 이미지(image), 벤춰(bench)’ 등 많은 수의 외래어가 남쪽과 표기가 다르다.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주로 어휘와 관련된 것이다. 어휘는 남쪽 안에서도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어휘를 제외하면 방언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류가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분단 이후에 들어온 말이 대부분이고, 같은 어원을 가진 외래어도 들어온 경로나 남과 북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남쪽에서는 외래어의 범위를 넘어 외국어에 가까운 어휘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 남북의 언어 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 외래어뿐 아니라 학술 분야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외래어나 외국어도 남과 북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남과 북의 언어 문제는 주로 두음법칙이나 사이시옷 등의 주요 규정을 초점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는 일괄적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는 데 비하여 외래어의 경우는 외래어의 표기 양상이 개별 어휘별로 매우 달라서 사전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현경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작 기관: 김환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까지다

《조선말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까지다1 [동]

① 껍질 따위가 벗겨지다.

② 재를 따위가 풀어들다.

까지다2 [동]

지나치게 악마서 되바라지다. ④ 나쁜 애들과

머물리더니 말투까지 {까질} 대로 {까졌다}.

까지다 [동]

(살이) 빠지다. ② 봄이 {까져서} 홀쭉하다

북: 봄무, 오랜만에 봄니다.
남: 그러게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북: 그런데 전보다 좀 까진 것 같습니다.

남: 말이 좀 심하네요. 까졌다니요.

북: 심하다니요. 까진 걸 까졌다고 하지 뭐라 합니까?

남: 제가 멀리 봐서 까겼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북: 봄무가 왜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하는 당신이 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북: 그만 합시다.

남: 뭘 그만 해요. 사과하세요.

북: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요.

남: 이 사람,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군.

북: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니, 당신이나 사과해요.

남: 적반하장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미상은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큰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까지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처음의 화기애애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서로의 언성만 높아지고 급기야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심한 말까지 내뱉고 있다. ‘까지다’에 있는 남과 북의 의미 차이로 드잡이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다.

‘까지다’라는 말과 잘 어울려 쓰이는 말들이 있다. 그것은 ‘홀랑, 홀딱, 홀렁, 발랑’ 등이다. ‘까지다’ 앞에 ‘홀랑, 홀딱, 홀렁’이 오면 ‘대머리’가 연상되고 ‘발랑’이 오면 ‘되바라진 아미’가 연상된다. 아래의 예처럼 말이다.

<홀랑/홀딱/홀렁+까지다>

- 내가 안 데날라고 형계로 그 마빡 홀랑 {까진} 수리조합장이 그러네. 군청과 상의해서 나루터에 집을 장만혀줄 템게 장사나 혀보라고 말여. 수리조합장 마시겠지? 『박범신: 겨울마이』

- 굿 차를 준비가 거의 되어가는데다 드디어 앞머리가 홀딱 {까진} 대머리 소자가 나타난 것이다. 『박정요: 머른도 길을 잊는다』

- 홀렁 {까진} 대머리인 이 영감님은 면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지극히 온순한 사람이란 소문이 었지만 면의원이 된 후로는 손바닥을 뒤집은 듯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정한숙: iyeu 도』

<발랑/까지다>

- 영주는 한때 발랑 {까진} 아미라는 말을 들을 만큼 눈치가 빨랐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자기보호본능에도 민감한 아미이기는 했었다. 『김인숙: 한 여자 이야기』

- 저희 밖에 행실이 암전하지 못한, 소위말하는 살랑 {까진} 여자애가 있어요. 『권지예: 유혹』

- 말허자면 한몸땡이 안에 순진무구한 동심 세계하고 발랑 {까진} 악동 세계가 의초롭게 공존 허던 시절이었지. 『윤홍길: 소란단 가는 길』

그런데 북은 ‘홀랑, 홀딱, 홀렁, 발랑’과 ‘까지다’가 절대로 어울려 쓰이지 않는다. ‘절대로’라는 말을 써가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한 쓰임을 찾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 발그레한 불이 형성재의 말대로 알아누웠던 탓인지 약간 {까졌다}. 『리병수: 붉은 지평선』

- 비록 볼은 {까쳤으나} 눈매만은 어찌도 정기찬지 그를 어떠한 체형으로써라도 굽복시킬 수 없으리라는 믿음을 느끼게 한다. 『박태민: 4번수』

북은 남과 달리 ‘홀랑, 홀딱, 홀렁, 발랑’ 대신에 ‘볼’과 함께 쓰고 있다. ‘볼’이 대머리처럼 벗어진 것도 아니고 베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되바라진 것도 아닐 텐데 ‘까지다’ 앞에 ‘볼’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 이유는 ‘까지다’의 남과 북 사전 풀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 유현경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작 기관: 김환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까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까지다1 [동]

① 껍질 따위가 벗겨지다.

② 재를 따위가 풀어들다.

까지다2 [동]

지나치게 악마서 되바라지다. ④ 나쁜 애들과

머물리더니 말투까지 {까질} 대로 {까졌다}.

까지다 [동]

(살이) 빠지다. ② 봄이 {까져서} 홀쭉하다

북: 봄무, 오랜만에 봄니다.
남: 그러게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북: 그런데 전보다 좀 까진 것 같습니다.

남: 말이 좀 심하네요. 까졌다니요.

북: 심하다니요. 까진 걸 까쳤다고 하지 뭐라 합니까?

남: 제가 멀리 봐서 까겼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북: 봄무가 왜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하는 당신이 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북: 그만 합시다.

남: 뭘 그만 해요. 사과하세요.

북: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요.

남: 이 사람,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군.

북: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니, 당신이나 사과해요.

남: 적반하장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미상은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큰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까지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처음의 화기애애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서로의 언성만 높아지고 급기야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심한 말까지 내뱉고 있다. ‘까지다’에 있는 남과 북의 의미 차이로 드잡이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다.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주로 어휘와 관련된 것이다. 어휘는 남쪽 안에서도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어휘를 제외하면 방언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류가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분단 이후에 들어온 말이 대부분이고, 같은 어원을 가진 외래어도 들어온 경로나 남과 북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남쪽에서는 외래어의 범위를 넘어 외국어에 가까운 어휘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 남북의 언어 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 외래어뿐 아니라 학술 분야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외래어나 외국어도 남과 북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남과 북의 언어 문제는 주로 두음법칙이나 사이시옷 등의 주요 규정을 초점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는 일괄적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는 데 비하여 외래어의 경우는 외래어의 표기 양상이 개별 어휘별로 매우 달라서 사전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현경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작 기관: 김환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까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까지다1 [동]

① 껍질 따위가 벗겨지다.

② 재를 따위가 풀어들다.

까지다2 [동]

겨레말 큰사전

2015
07

누리판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제23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 개최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제23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과 문영호 북측편찬위원장 등 총 34명의 남북 편찬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1,669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15,727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한 공동 집필 작업을 통해 현재까지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총 33만여 개 어휘 중에서 약 9만여 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



▲ 2015년 5월 4일~11일 진행된 제23차 공동편찬회의

겨레말 큰사전

2015
07

누리판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언어 통일 준비를 위한 『겨레말큰사전』’,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 가져 - ‘통일박람회 2015’ 참가

사업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통일박람회 2015’에 참가하였다.

‘함께 준비하는 언어 통일, 『겨레말큰사전』’의 이름을 단 이번 행사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소개 및 관련 자료 전시, 사전 편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북 언어 차이 이해를 위한 북한 도서 전시, ‘남녘말 북녘말 퀴즈’ 등으로 진행되었다.

남북의 언어 차이를 직접 체험하며 사전 편찬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많은 시민들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의 언어 통일을 위해 『겨레말큰사전』이 하루 빨리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사업회는 함께하는 언어 통일 준비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꾸준히 가질 예정이다.



▲ 2015년 5월 29일~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통일박람회 ‘함께 준비하는 언어 통일, 『겨레말큰사전』’

2015
07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겨레말 소식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지난 6월 25일 사업회 '행동강령책임관'인 김명영 상임감사의 주관으로 부패방지와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사업회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2015년 6월 25일 진행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015
07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겨레말 날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제69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7월 3일 제69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홍종선 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4차 공동편찬회의 준비 사항>과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15년 7월 3일 개최된 제69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겨레의 창 우리말 보물찾기 뜻풀이 깁고 더하기 남녘말 북녘말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날말 풀이

■ 겨레말 날말 풀이

					4		5
	2						
1				3			
6	7						
					8		
				9			

- ① '에스컬레이터'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자동계단'이라고도 한다. ○○승강기.
- ② 북에서 '행차'를 다듬은 말로, "주로 더운 여름철에 마시는 차에 만든 단물."을 뜻한다. 예) ○○○을 마시다.
- ③ 북에서 "우리 글자 'ㄱ'의 이름."을 뜻하는 말로, 남에서는 '기역'이라고 한다. 예) 낫 놓고 ○○자도 모른다.
- ④ '연꼴'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칼시움(칼슘)성분이 적은 말랑말랑한 뼈."를 뜻한다.
- ⑤ '관절통'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뼈마디가 쑤셔나면서 아픈 것."을 뜻한다. ○○○마픔.
- ⑥ 북에서 '나비영'을 다듬은 말.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과 허리를 굽혔다 꾸었다 하면서 치는 혜염."으로 남에서는 '접영'이라고 한다.
- ⑦ '와이퍼'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운전대의 앞유리 바깥면에 설치하여 비가 내릴 때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비물을 닦아 차를 운전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 ⑧ '불도저'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앞뒤바퀴사이에 좁고 긴 보습을 주행방향에 비탈지게 설치하여 땅의 높은 곳을 깎거나 밀어서 옆으로 옮겨놓는 굴착운반기계의 한가지."를 뜻한다. 평토○.
- ⑨ 북에서 '유모차'를 다듬은 말로 "젖먹이나 어린애를 태워 끄는 차."를 뜻한다. 예) ○○○에 앉아서 잠이 든 갓난아이.

정답확인 >

					4	삭	5	呻
	2	찬						마
1	계	단	승	강	3	기		디
						목		마
		물						픔
6	나	7	비	해	염			
			물			8	평	
			닭				토	
		개			9	애	기	차